

정유업계, 친환경 연료 사업 본격화... 업황 돌파구 모색

항공, 선박 등 수요 증가 전망
설비투자·국제규격 인증 활발
“경쟁력 확보 위해 국가 지원 필요”

정유업계가 올해도 글로벌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환율 급등 등 복합적인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친환경 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5월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약 1조원 규모였던 SAF(지속가능항공유)F시장은 오는 2027년까지 약 2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SAF 사용 의무화가 이루어진 영향이 크다. 유럽 연합(EU)은 올해부터 유럽 지역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최소 2%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해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미국은 2050년까지 항공유 사용 전량을 SAF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최근 정부 주도의 ‘석유 컨퍼런스’에서도 SAF와 바이오 선박유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정유업계는 SAF 개발 등 친환경 시장 개척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에너지는 코프로세싱 방식의 SAF 전용 생산라인을 갖추고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 특히 국내 정유사 중 처음으로 유럽에 SAF를 수출하기도 했다. 이번 수출한 SAF는 코프로세싱 생산 방식으로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등 바이오 원료를 가공해 만든 것이 특징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24년 5

월 국내 최초로 일본에 SAF를 수출했다. 회사는 EU 인증을 받은 ISCC EU 방식의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GS칼텍스는 핀란드 네스테의 SAF를 공급받아 일반 항공유와 혼합해 제조한 CORSIA SAF를 지난해 일본에 상업 수출했다. GS칼텍스도 SAF 직접생산을 위한 설비투자(CAPEX)를 진행할 계획이다.

에쓰오일 또한 코프로세싱 생산라인을 갖추고 지난 2024년 8월 대한항공 정기노선 여객기에 주 1회 SAF공급을 개시했다. 9월에는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 정기여객노선으로 공급범위를 확대했다.

바이오선박유도 정유사들이 주목하는 친환경 사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선박유는 오는 2034년까지 시장 규모가 11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선박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

한 연료로, 선박 엔진과 연료 공급 시스템을 개조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선박 유 공급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6개월간 바이오선박유 실증을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바이오연료의 국내 상용화를 위한 법 제도 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이르면 올해부터 바이오선박유의 국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SAF와 바이오선박유 등 친환경 연료가 글로벌 규제 강화와 맞물려 정유사들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정부 지원과 기술 개발이 뒷받침된다면 국내 정유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제네시스 GV60 부분변경 모델.

제네시스 GV60 부분변경 모델 공개

제네시스 ‘GV60’가 한층 역동적으로 진화해 돌아왔다.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6일 럭셔리 준중형 전기차 ‘GV60 부분변경 모델(이하 GV60)’의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했다.

이번 GV60은 브랜드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바탕으로 강인하면서도 모던한 이미지가 더해진 외장과 ‘여백의 미’와 하이테크 감성이 돋보이는 실내를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거듭났다.

제네시스는 1분기 중 GV60의 상세 사양과 가격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SK그룹, ‘혁신의 문’ 세운다... AI 기반 미래 청사진 제시

CES 2025

4개 관계사 공동 전시관 운영
최태원 회장 등 주요 경영진 방문

SK그룹은 7일부터 10일까지(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인공지능(AI) 혁신 기술이 가져올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SK는 CES 기간 중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 홀에서 ‘혁신적인 AI 기술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든다’를 주제로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C, SK엔트비 등 4개 관계사가 공동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전시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박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 등 최고 경영진도 대



CES2025 SK 전시관의 입구인 ‘혁신의 문(Innovation Gate)’의 조감도.

거 방문한다.

‘AI 토털 솔루션’을 강조하는 최 회장은 국내외의 주요 기업관을 관람하며 첨단 AI 기술 트렌드를 점검한다. 이어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 잇따라 만나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

SK그룹의 AI 사업 비전을 구체화

한 올해 전시관은 ▲AI 데이터센터(DC) ▲AI 서비스 ▲AI 에코시스템으로 채웠다.

특히 대형 발광 다이오드(LED) 화면 21개로 만든 ‘혁신의 문’이 전시관 입구 역할을 한다. 데이터 흐름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푸른색 전자 신호가 화면을 수놓는다. 이곳을 통과하면 6m

크기의 LED 기둥을 중심으로 AI 실력을 선보인다. 전시관의 마무리인 ‘지속 가능한 나무’라는 이름의 LED 조형물이 맡는다.

AI DC 테마로 구성된 전시 구역은 데이터센터를 구성하는 핵심 노하우인 에너지 효율성과 고대역폭메모리(HBM)3E 중심의 AI 반도체,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채웠다.

SK텔레콤은 AI 서비스 테마의 전시 구역에서 AI 기반의 기술·서비스 콘텐트를 공개한다.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올해 출시 예정인 AI 에이전트 ‘에스터(Aster)’를 현장에서 시연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도 발표한다.

AI 에코시스템 전시 구역에서는 SK와 함께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사 5개사(가우스랩스, 람다, 엔트로픽, 퍼플렉시티, 핑귌솔루션스)의 AI 솔루션과 서비스 등을 소개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삼성전자 ‘삼세페’ 구매혜택 강화

삼성전자가 가진 구독 제품들을 포함한 ‘2025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삼세페)’ 특별 혜택을 5주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또 매주 월요일 10시 삼성닷컴에서 ‘삼세페 쇼킹프라이스’를 진행, 한정 수량 최저가 판매한다.

삼세페 쇼킹프라이스에는 구독 제품도 포함된다. 매주 월요일 공개되는 구독 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12개월 구독료 상당의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제품에 따라 AI 구독클럽 삼성카드 결제대금 차감 시 구독료 0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일반 제품의 경우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TV, 냉장고, 스마트폰, PC 등 총 30여개 제품을 매주 공개한다.

/김서현 기자

고려아연 “희귀·희소 금속 회수율 증대로 수익성 개선”

제련 기술력 앞세워 위기 돌파
니켈 사업 등 기술·설비 투자 확대

고려아연(회장 최윤범·사진)이 2025년 세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제련 기술력을 앞세워 위기를 돌파한다.

고려아연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힘든 상황에서 희귀·희소 금속의 회수율 증대를 앞세워 수익성을 더욱 개선하겠다고 5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련 기술력을 토대로 수익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최근 제련 수수료 하락과 산업용 전력 단가 상승 등 올해 경영 환경 전망이 밝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려아연은 비철 금속 세계 1위에 오른 기술력과 선제적 투자, 원가절감, 공정 개선, 맨파워 등에 힘써 수익성 악화 위기를 타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략광물자원인 안티모니, 비스무트 등 매출이익률이 높은 희귀·희소 금속의 회수율을 높이는 기술적 역량을 집중한다. 회수 능력도 극대화해 매출총이익을 올해 253억원, 2027년까지 700억원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희귀금속 회수율을 품목별로 20~30% 이상 끌어올려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려아연은 주요 신사업 중 하나인

니켈에도 집중한다.

2차전지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금속인 니켈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시장 수요량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니켈 원료를 내년 2분기 가동 목표로 건설 중인 울진원 니켈제련소에 공급하면 약 108억원 매출총이익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 가능성이 높도록 기술 투자와 생산 시설 증대도 이어갈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제련 잔사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세스 재정립과 조업 기준 및 설비 강화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공정 개선으로 약 360억원의 매출총이익 성장을 올릴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기아, 봉고 출시 45주년 ‘스마트 셀렉션’ 트림 선포

기아가 봉고 출시 45주년을 기념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스마트 셀렉션’ 트림을 6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스마트 셀렉션 트림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을 기본 적용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LPG 터보 1.2톤 스마트 셀렉션은 5단 자동변속기를 기본 적용하고 최고 출력 159마력(PS), 최대 토크 30.0kgf·m의 동력 성능을 갖췄으며, EV 1톤 스마트 셀렉션은 GL 트림과 동일한 배터리를 적용해 211km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